

# 동시다발 압수수색·관련자 줄소환... 박대통령 전방위 압박

## 특검·뇌물죄·세월호 7시간·블랙리스트 3트랙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현판식 직후부터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다. 1차 수사기간이 70일로 정해져 시간이 빠듯한 실정에서 관심이 큰 사안부터 해결하는 ‘두괄식’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날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특검팀은 ▲박대통령 뇌물죄 ▲‘세월호 7시간’ 의혹 ▲문화블랙리스트 구명 등 세가지 트랙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뇌물 고리** =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장관(박근혜 정부)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직원 등 10여명을 전원 압수수색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이로 농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김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포폴 처방과 함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장모를 진료한 뒤 병원 문을 닫고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병원 기록에 20㎖짜리 프로포폴 1병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 의문이 증폭됐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 원장이 긴밀하게 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 삼성과 뇌물 고리 혐의

### 문형표 전 장관 긴급체포

### 조여옥 출금·김영재 압색

### 비선 ‘이로 농단’ 본격 수사

특검팀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수혜를 입은 삼성이 상응하는 대가로 미르-K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는지, 또 그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과 의료농단’** = 특검팀은 28일 오전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관련 병·의원 등 10여곳을 전원 압수수색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이로 농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김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포폴 처방과 함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장모를 진료한 뒤 병원 문을 닫고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병원 기록에 20㎖짜리 프로포폴 1병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 의문이 증폭됐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 원장이 긴밀하게 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또 특검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문화블랙리스트 의혹 풀리나** =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관주(52)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지난 27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일단 정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지시 주체 등을 확인한 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차관은 2014년 말부터 을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운선(50) 문체부 장관이었다.

특검은 조운선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문체부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방물을 근거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호일’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6월께 자신이 이 리스트를 직접 봤으며,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포승줄 묶인 문형표 前장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최순실 사건 오늘 준비 마무리 내주 첫 재판”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르면 29일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째 주에 첫 공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29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첫 공판기일을 다음 주로 지정해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둘째 주부터는 매주 2~4차례 공판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들에 집중해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형사합의22부가 맡았던 여타 사건 16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29일 공판준비 기일이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은 총 5건이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여)씨, 김 총(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의 관련 첫 공판준비 절차가 오전 10시10분에 가

장 먼저 열린다. 오전 11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을 향해 이 회사 이 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첫 공판준비 절차가 이어진다.

최씨와 안중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미르·더블루케이 재단 후원 강요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은 오후 2시 10분,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씨 재판은 오후 3시로 각각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 유네스코도 인정한 ‘제주 해녀의 생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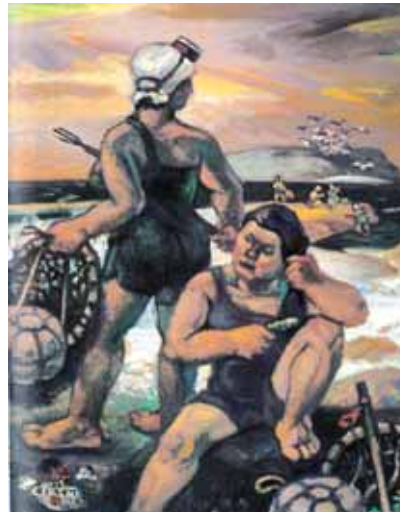
(169) 해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채취해 온 해산물을 즉석에서 맛보았던 경험은 특별했다. 그 바다의 싱싱한 식감을 제주의 해조음과 함께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지난 주 다녀왔던 제주도에서 해녀를 만난 건 바다가 아니라 제주도립미술관이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여성 주도의 지역경제활동, 불타에서 시작된 공동체정신, 배려와 공존의 미덕이 높이 평가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미술

관에서 본 장리석화백(1916~)의 해녀 연작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다. 장리석화백의 ‘남국의 여인들’(1988년 작)은 멀리 물질을 막 마치고 물로 올라오고 있는 숨찬 해녀들의 모습과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는 해녀들을 근경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리는 듯 고단하고 척박한 해녀들의 삶이 화백 특유의 갈색과 녹색, 황색의 향토성 짙은 질박한 색감 묘사로 화폭에서 강인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난다. 화백의 해녀는 회화적 대상으로서의 여인이 아니라 거친 바다와 물에서 초인적인 삶을 이끌었던 강한 생명력의 제주 어망이었다.

올해 100세의 화백은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시기 제주에서 4년여의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제주의 원시적인 풍경과 바다, 사람들의 삶에 빠져들었고 그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후일 제주를 떠나서도 제주가 안겨준 감성은 그



장리석 작 ‘남국의 여인들’

에게 예술의 뿌리가 되었고 해녀 연작과 한라산, 조랑말, 제주의 오름과 바다 등은 화백의 중요한 그림 소재가 되었다. 제주를 담은 그의 작품들은 2005년 작가가 제주도에 110점의 작품을 기증해 탄생한 제주도립미술관의 장리석기념관에서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정세균 의장 “국민 뜻 담아낼 개헌 차근차근 준비”

### 개헌특위 오늘 본회의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방안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국회 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28일 합의했다. 특위 위원은 총 36명으로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가칭)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초부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하게 됐다.

때마침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국민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며 밝혀 개헌 논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공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헌법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

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정과정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며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제임기 중 개헌될 소지도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태영21병원  
▶ 인공신장실(아간투석)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입원실(46 bed)  
▶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